

202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가) 독해 과정에 대한 실험

연구자들은 ‘집’이라고 제목 붙여진 글을 두 집단의 학생들에게 읽게 하였다. 이 글은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수도 비슷하다.

A 집단에게는 도둑의 입장에서, B 집단에게는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게 하였다. 실험 결과, A 집단의 독자들은 차고에 있는 좋은 자전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의 위치 등의 정보를 많이 기억하였고, B 집단의 독자들은 지붕이 썩어 햇빛이 새어 들고 지하실에 습기가 많다는 등의 정보를 많이 기억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 패스트푸드 가게에 갔다. 가게에서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다.”라는 글을 읽게 한 후 “철수는 왜 줄을 서서 기다렸는가?”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글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채워 넣으며 답을 했다.

(나) 독서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상의 연구들은 독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 기능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가 정보의 선택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독자가 의미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생략되거나 감추어진 내용을 채워 나가는 (㉡)을/를 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

음운 현상 중에서 첨가, 탈락, 축약은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있는 현상이다. 첨가는 ‘멘입 → [멘닙]’처럼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탈락 중에서 활용에서의 /ㄹ/ 탈락은 (1)에서 보듯이 ‘/ㄴ, ㄱ/ 앞’에서 일어난다.

(1) 만드니, 만드시니

그런데 (2)에서 보듯이 /ㄹ/ 말음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때도 /ㄹ/ 탈락이 일어난다.

(2) 만들 (수 있다)

(2)에서 /ㄹ/이 탈락한 이유는 (1)과는 다르다. (2)에서 /ㄹ/이 탈락한 이유는 (㉠) 때문이다.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탈락과 같다. 그러나 축약은 ‘중다 → [조타]’에서 보듯이 두 음운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탈락과 차이가 있다.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3)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3) 일구+어 → [일귀], 거두+어 → [거뒤]

왜냐하면 (㉡) 때문이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腔 내 님들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산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附葉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후디 녀져라 아으
 附葉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
 三葉 물헛마리신더
 四葉 술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나)

강천(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후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허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허야 풋증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허야 쉼의 님을 보니
 옥 7튼 얼굴이 반이나마 늘거세라
 머슴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허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찌뚫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다)

님으란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남기 되고 나는 삼사월 늙너
 출이 되야
 그 남괴 그 늙이 낙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촌촌 저리로 촌촌
 외오 프러 올이 감아 밋부터 쫓쫓지 혼 곳도 빈 틈 업시 주야장상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이셔
 동(冬)섯쫓 바람비 눈셔리를 아모리 마즈들 풀닐 줄이 이시라

- 이정보 -

3. <보기>는 고전 시가에 나타난 시간 의식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시어나 시구를 찾아 쓰시오.

[2점]

<보 기>

한국의 시가 문학에서 '과거-긍정적, 현재-부정적, 미래-부정적'인 시간 의식의 유형은 매우 보편적이다. 과거는 (가)에서 '님'과 '후디 녀'던 시간으로, (나)에서 '님'의 (㉠)을/를 가까이서 보았던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현재는, (가)에서는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님'에 의한 망각을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나)에서는 오직 꿈을 통해서만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미래에는 '님'과 '나'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이다.

4. <보기>는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이다. 문맥을 고려하여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보 기>

(나)와 (다)는 모두 변신 모티프를 시적 발상의 단초로 활용하여 남녀 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 화자는 '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이/가 현생에서는 해소될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 전생(轉生)을 통한 변신을 바탕으로 그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면, (다)에서는 '님'과의 사랑에서 느끼는 (㉡)을/를 극대화하고자 전신(轉身)을 통한 변신을 소망하게 된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정서가 동일하게 변신의 소망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5.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 교사는 국어 시간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최근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상황과 그때 오갔던 말'을 적어 보게 한 후 이를 짝과 함께 역할극으로 재연해 보게 하였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학생 A: 이번 달에 모둠 발표 과제가 3개나 있어. 나는 모둠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싫어. 모둠 구성원들과 서로 시간 맞춰야 하지, 의견이 다르면 계속 토의해야 하지, 같이 모여서 발표문 써야 하지, 시간도 많이 들고...

학생 B: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

학생 A: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

학생 B: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학생 A: 그렇지만 말은 부분을 잘 안 해 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뭉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

학생 B: ㉠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둠 과제니까 좀 손해 본다 싶더라도 참고 해야지.

학생 A: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나)

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크게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로 구분한다. 공감적 듣기는 참여자 간에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작성 방법>

-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기의 맥락으로 볼 때, ㉠의 문제점을 ㉡의 관점에서 2가지 서술할 것.
- 학생 B에게 필요한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의 표현을 수정할 것.

6. 다음을 읽고, '파생어의 어근과 접사'의 특성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접사 중에는 단일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것도 있고, ㉢ 둘 이상의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접두사 '뜻-'은 명사 어근과만 결합하는 데 비해, 접미사 '-질'은 명사 어근은 물론 부사 어근과도 결합한다.

접사는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 결합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음운론적 조건을 가진 어근과만 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접사가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때,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질 경우, 그러한 접사를 ㉣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그리고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한다.

<자 료>

- (1) 덧버선, 덧붙다, 덧신, 덧입다
- (2) 슬기롭다, 여유롭다, 지혜롭다, 향기롭다

<작성 방법>

- ㉢을 참고하여 (1)의 어근들의 품사 2가지를 서술할 것.
- (2)의 어근들의 음운론적 조건을 서술하고, (2)의 예에서 접사가 ㉣에 해당함을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할 것.

7. <자료>를 탐구하여, 중세 국어 의문문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 (1)
 - ㄱ. 네 엇데 안다 <월인석보 23:74a>
 - ㄴ. 네 겨집 그려 가던다 <월인석보 7:10a>

- (2)
 - ㄱ. 이는 엇던 사롭고 <월인석보 22:26b>
 - ㄴ. 이 두 사르미 眞實(진실)로 네 항것가 <월인석보 8:94b>

- (3)
 - ㄱ. 瞿曇(구담)이논 어딘 사르미라 <월인석보 4:9b>
 - ㄴ. 吏(리)논 다스리는 거시오 <월인석보 13:13b>

<작성 방법>

- 의문문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 2가지를 설명할 것.
- (2ㄱ)의 '고', (2ㄴ)의 '가'를 어미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3)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

8. 다음을 읽고, 수행 평가 계획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교사 A: 1학기 <화법과 작문> 수행 평가 계획의 초안을 준비해 보았는데, 보완할 점에 대해 협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행 평가 계획

1. 쓰기 과제
현안을 분석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건의문을 써 보자.
2.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 ① 분석적 평가 방법 적용
 - ②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
 - ③ 평가 요소별 피드백 제공
3. 건의문 평가 범주 및 평가 요소

평가 범주	평가 요소
내용	•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가?
	•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조직	• 건의문 구성 형식에 알맞게 글을 조직했는가?
	• ... (생략) ...
표현	•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표현했는가?
	• ... (생략) ...

교사 B: 평가 계획을 작성하느라 수고하셨네요. 근데, 수행 평가 계획에는 결과 평가만 계획되어 있는데 ㉠ 과정 평가도 실시하면 어떨까요?

교사 A: 좋습니다. 저는 결과 평가만을 계획했는데,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렇다면, 학생 자신이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사고를 기록하도록 하는 과정 평가를 추가하기로 하지요. [A]

교사 B: 네. 그럼 다음으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논의해 보죠. 내용 범주에 대한 평가 요소를 조금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건의문은 현안 분석을 하여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지요.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 쟁점의 경우에 독자가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 쟁점을 제시했는지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가?”의 평가 요소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A: 그렇지요. 해결 방안 쟁점에 관련된 평가 요소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건의문은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지요. 이에 그 대상이 해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의 요건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쟁점의 평가 요소는 “해결 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 이익이나 기대 효과를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했는가?”라고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B]

<작성 방법>

- [A]의 맥락에서 ㉠의 교육적 의의를 서술하고, ㉠의 구체적 방법 2가지를 제시할 것.
- [B]의 맥락에서 ㉡을 수정하고, ㉢이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서술할 것.

9.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바람의 따뜻한 허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쟁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 날 듯
온통 보석 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바람의 싸늘한 손이
썩 썩잉, 싸대기를 후리자
쟁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후둑둑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 고재중, 「성숙」 -

<보 기>

시적 형상화는 작가는 음운 단위에서부터 크게는 시상의 전체적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의 정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성 상징어는 음운적 특성을 통해 시적 분위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 소재들의 유기적 관계 설정은 작품의 내적 맥락의 일관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작성 방법>

- 1연, 2연에서 음성 상징적 표현이 시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각각 서술할 것.
- 3연의 시어 2개를 인용하여 ‘바람’과 ‘미루나무’의 관계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A]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할 것.

10. (가)는 ‘매체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단원에 대한 쓰기 수업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의 수업 성찰 일지이다. (가)의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계획

- 학습 목표: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를 바탕으로 공익 광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유해 보자.
-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

차시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제작의 과정과 방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제작의 과정 알기 -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설명하기 - 기획안과 스토리보드 설명하기 • 모듈별로 공익 광고 기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의도를 설정한 후 기획안 작성하기 - 기획안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언어는 매체 언어로서 ㉠ 복합 양식적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모듈 내 협의와 ㉡ 다른 모듈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광고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며 촬영하도록 지도한다. •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촬영한다.

(나) 수업 성찰 일지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쓰기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전통적인 쓰기 수업만 담당해 왔던 나에게 큰 도전과도 같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글쓰기와, 영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공익 광고 영상 제작은 표현 과정과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 광고는 촬영하기와 편집하기라는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인 글쓰기의 경우 필자는 다양한 수사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반면에 공익 광고의 생산자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 언어로 생각을 표현한다. 나는 2차시의 촬영하기 수업에서 ㉢ 영상 언어의 시각적 요소를 표현하려면 카메라의 어떤 요소들을 조절하며 촬영해야 하는지, 청각적 요소를 어떻게 녹음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통적인 글쓰기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수업에서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매우 강조했다. 이 수업에서도 글의 의미는 필자와 독자 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작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작문 이론에 따르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와 독자 간의 능동적인 의미 협상의 과정에 해당한다. 나는 이 이론을 반영하여 광고 영상은 글에, 생산자는 필자에, 수용자는 독자에 대응시킨 뒤에 모듈 간 협의를 실시하였다.

<작성 방법>

- ㉠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에서 교사가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1가지를 서술할 것.
- (나)에 근거할 때, 교사가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작문 이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 ㉢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다른 모듈’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11. 다음을 읽고, '전우치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전우치가 말했다.
 “제가 도술을 좀 할 줄 알아 선생께 보여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화담 선생이 말했다.
 “좋을 대로 하시지요.”
 전우치는 밖으로 나가 무수히 많은 참새를 몰아 화담 선생이 앉은 자리 앞에서 높이 날아오르게 했다. 그러자 송덕이 말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누이동생 역시 창 안에서 지켜보고는 혀를 차며 감탄했다. [A]
 이때 화담 선생이 “헛!” 하고 기합을 넣자 참새 떼가 뜰 가운데로 내려오더니 복숭아 잎으로 변했다.
 전우치가 이번엔 부적을 날렸다. 그러자 호랑이가 포효하며 동산에서 뛰어들었다. 눈을 치켜뜬 채 허연 이빨과 빨간 잇몸을 드러내고 누런내 나는 입김을 뿜어내며 발톱을 세워 당장이라도 사람을 낚아채 물어뜯을 기세였다. 화담 선생이 다시 “헛!” 하고 기합을 넣자 호랑이는 별안간 전우치를 낚아채 물어뜯었다. 전우치가 쓰러지는 순간 호랑이는 사라졌다.
 화담 선생의 아우와 누이는 놀랍고도 무서워 턱을 덜덜 떨며 전우치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빌었다. 화담 선생이 말했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요사스런 도술에 홀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부채로 전우치를 치자, 전우치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더니 뜰 아래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선생의 도술이 이처럼 높으신지 헤아리지 못하고 작은 재주를 펴 보였으니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요사스런 도술에 불과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는 데나 쓰일 뿐이니, 선생께서 지니신 신선의 도술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윤 승지에게 제 재주를 보인 적이 있었습디만, 윤 승지가 공부한 것 역시 신선의 도술이었기에 제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도술은 또 윤 승지보다도 몇 곱절 뛰어나십니다.”
 화담 선생이 말했다.
 “이른바 ‘신선의 도술’이니 ‘요사스런 도술’이니 하는 게 무언지는 잘 모르겠소. 나는 다만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제압했을 뿐이오. 듣자니 당신이 요사스런 도술을 부리며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벌이고 다닌다고 하더구려. 앞으로 서울에 있지 않고 멀리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며 다시는 함부로 요사스런 도술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쯤에서 그치겠지만,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전우치가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로부터 전우치는 자취를 감추어 세상에서는 그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중략) ...

㉡ 나는 이렇게 논평한다.
 “주자와 서화담이 어찌 잡된 술법을 좋아했겠는가? 이분들은 모든 이치와 학문에 통달했으므로 하지 않았던 것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자가 『참동계(參同契)』를 풀이하는 글을 짓고, 서화담이 전우치의 술법을 제압하여 굴복시킨 일은 같은 이치이다. 하물며 군자는 정(正)이고 술사는 사(邪)이며, 군자는 양(陽)이고 술사는 음(陰)이니, 사가 정을 이기지 못하고 양이 음을 제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작자 미상, 『전우치전』(한문본) -

<작성 방법>

- [A]에서의 대결 결과에 대한 '전우치'와 '화담 선생'의 평가 관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서술할 것.
- ㉠의 문맥적 의미를 쓰고, ㉡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할 것.

12. 다음을 읽고, '한국 저항시의 특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찢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렸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취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께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보기>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에 지사(志士)로서의 삶을 견결하게 유지하면서 민족 해방의 의지를 담은 작품은 물론이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회한을 진정성 있게 표현한 작품도 함께 보여 준다. 「자야곡(子夜曲)」, 「절정」, 「황혼」, 「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 개인으로서 표방하며 갖게 되는 번민이 ㉡ 지사로서의 역사적 전망과 공존하는 시 세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향은 육사의 시에서 모순을 이루는 두 축이 아니라 대화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육사의 시를 다채롭게 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육사와 유사한 시기에 작품을 발표한 운동주의 시에도 ㉢ 개인의 번민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작품과 ㉣ 희생적 의지의 자아가 두드러진 작품 등이 공존하고 있다. 「십자가」, 「간」,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등의 작품이 그렇다. 이것이 이육사와 운동주의 시가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작성 방법>

- (가)에서 ㉠을 표상하는 표현들을 응집해 주는 구절을 찾아 쓰고, (나)에서 ㉡이 나타난 구절을 찾아 쓸 것.
- ㉢, ㉣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을 <보기>의 운동주의 작품 중에서 각각 1가지씩 찾아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